

점포서 주문하면 24시간 이내 수확·포장·배송

매장이 곧 산지... 롯데마트 '로컬푸드' 선순환

도입 5년만에 점포 31곳→110곳
매출 3억→100억으로 33배 증가
업계 첫 GAP 로컬채소매장 오픈

롯데마트가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강화한다.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지역에서 소비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이는 물리적 거리가 최소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방식을 통해 친근한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만드는 방식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4년부터 로컬채소 매장을 운영해왔다. 각 점포 생산자 간 직거래로 운영하며, 점포 반경 50km 이내의 지역 우수생산자를 발굴해 점포에서 직접 주문하면 인근 생산자가 24시간 이내에 수확, 포장, 배송해 주는 방식이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마트의 입장에서 고객의 매장 유입을 위해 직접 보고, 만지고 사야한다는 인식



롯데마트 지역 농산물 판매 모습

/롯데쇼핑

이 강한 신선식품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롯데마트는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삼아 '매장이 곧 산지'라는 가치를 고객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신선식품의 절대 우위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롯데마트 로컬채소 현황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4년에 비해 2019년에는 점포 수 31개에서 110

개로 늘었으며, 매출액 또한 3억에서 100억으로 33배 증가했다.

롯데마트의 로컬채소는 전 상품 GAP 인증을 받은 상품만 취급하는 'GAP 로컬채소 전용매장'으로까지 발전했다. 'GAP 로컬채소 전용매장'은 유통사 최초로 지난 2019년 3월 서울 서초점에 오픈했다. 기존 로컬채소 매장에서 GAP 전용매장으로 확대되는 형태로

현재 60개에서 올 하반기까지 100개점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GAP 로컬채소 전용매장'은 농가에서 직접 거래하는 상품의 안정성에 의문을 갖는 고객들에게 로컬채소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GAP 인증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소작으로 농사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인증이다.

롯데마트는 최신 농업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 로컬채소'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재배 시설의 온도, 습도, 일사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분석해 최적의 생육 환경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이다. 급변하는 자연과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18년부터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과 스마트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산자 중심으로 시작한 로컬채소는 전국 우수산지 발굴을 통해 신선식품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9년 8월부터 로컬

푸드의 생산자 기반 사상을 반영, 확장한 '대한민국 산지특심'이라는 신선식품의 품질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 있는 농,수,축산물 우수산지 생산자들의 상품들을 '대한민국 산지특심'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특심'을 가지고 오롯이 우수한 품질의 상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우수 로컬 상품 생산자를 발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2019년 10월에는 보다 많은 생산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생산자 공개 모집도 진행해 40농가 신청자 중 17농가를 거래 대상으로 선정했다.

롯데마트 문영표 대표는 "지역의 우수한 신선식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롯데마트가 곧 산지'라는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한다."며, "지역의 우수생산자와 상생 협력을 통해 신선식품의 절대적 우위를 담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내몸에 착! 고객 피드백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란제리

신세계뷰 '언컷' 프리미엄 컬렉션
S·S시즌 맞아 플러스사이즈 준비
편안하며 여성스러운 실루엣 강조



언컷 오가닉 코튼 제품 /신세계백화점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해온 신세계백화점이 이번에는 프리미엄 속옷 시장까지 넘는다.

2020 봄·여름(S·S) 시즌을 맞아 더욱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 플러스 사이즈 제품도 준비했다.

신세계의 란제리 편집매장 '엘라코닉'의 대표 브랜드인 '언컷'이 이달 처음 선보이는 프리미엄 컬렉션은 고급스러운 오스트리아 하이엔드 지수를 선보인다.

겉보기에 아름답지만 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하는 입체 패턴이 특징이다. 핑크

플러스 사이즈를 위한 '플러스 스위트(Plusweet) 라인'은 실제로 엘라코닉과 언컷을 이용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통해 제작한 상품으로 속옷 선택에 대한 여성들의 고민을 듣고 개발에 나섰다.

여성들의 다양한 몸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편안한 착용감을 전달하고자 하는 엘라코닉의 가치를 살린 제품으로 M(80A·B), M++(80C·D), L(85A·B), L++(85C·D)까지 사이즈를 확대했다. 와이어가 없는 브라렛의 편안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자랑한다.

입고 벗기 편안하면서도 넓은 어깨와 등을 커버하는 프론트 후크 브라렛, 가슴이 큰 고객들을 위해 얇은 부직포 패드로 부드럽게 감싸주는 제품 등 2가

지 디자인을 마련했다. 고객들과 사전 설문을 통해 준비한 라인으로 가격은 브라 7만9000원, 팬티 2만8000원이다.

이번 시즌 언컷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재로 차별화를 강조한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언컷에서도 독일 오가닉 코튼 레이스를 사용한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화학 비료와 농약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목화로 만든 오가닉 코튼으로 피부에 닿았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소재이다.

오픈 2년 반 만에 매출 규모가 6배 넘게 늘어난 엘라코닉은 현재 신세계 강남점, 본점, 센텀시티점, 경기점, 광주점, 대구점 총 6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다. SSG닷컴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만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오뚜기 컵밥 부산식 돼지구밥

오뚜기는 진한 육수의 정통 부산식 돼지구밥 '맛있는 오뚜기 컵밥 부산식 돼지구밥(사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돈골로 진하게 우려낸 깊은 국물맛이 특징이다. 담백한 돼지고기를 푸짐하게 넣어 정통 부산식 돼지구밥을 간편한 컵밥으로 구했다. 맛있는 오뚜기 컵밥 부산식 돼지구밥은 기존 컵밥 대비 밥을 20% 더 담은



프리미엄 컵밥으로 기존 컵밥의 양이 다소 부족하다는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민지 기자

베스킨라빈스 '오레오 메가팩' 2종

베스킨라빈스가 오레오 아이스크림을 가득 담은 '오레오 메가팩(Mega Pack)' 2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킷킷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로투스 비스코프 아이스크림'도 메가팩 형태로 시즌 한정 선보인다. 오레오 메가팩은 오레오 쿠키를 가득 넣은 제품으로, 바닐라아이스크림을 베이스로 한 '오레오 쿠키앤크림'과 카라멜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오레오 쿠키앤크라멜'로 구성됐다.



/김민지 기자

롯데푸드 '빵빠레샌드' 출시

롯데푸드는 인기 소프트콘 '빵빠레'를 샌드형 아이스크림으로 재해석한 '빵빠레샌드(사진)'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빵빠레샌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위 아래에 밀크 카스텔라를 샌딩하고 고급 파스퇴르 우유를 넣어 빵빠레 특유의 부드러운 바닐라 맛을 살렸다. 180ml 용량에 카스텔라와 아이스크림이 조화를 이룬 간식이나 디저트로 즐기기가 좋다.

/김민지 기자



이마트, 한우·활전복 등 최대 40% 할인

이마트는 한우, 활 전복, 향표고버섯, 경기미 고시히까리, 갈치 등 봄철 입맛 돋우는 식탁 메뉴 할인행사에 돌입한다.

먼저, 한우를 최대 40% 할인한다. 구이로 즐길 수 있는 한우 등심은 행사 카드로 구매 시 30% 할인해 1+등급은 100g당 8610원, 1등급은 100g당 7350원에 판매한다. 4인 가족 기준 (인당 150g) 5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1등급 한우 등심을 즐길 수 있다.

국거리 한우와 불고기용 한우는 행사 카드로 구매 시 40% 할인하여 100g 기준 1+등급은 3480원, 1등급은 3240원에 준비했다.

이마트 변상규 축산 바이어는 "가정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우 경매 시세는 전년 동기 대비 5%정도 상승했지만, 이마트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공급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활 전복은 5마리(230g내외/팩)에 8900원에 판매한다. 전복은 타우린, 단백질, 비타민, 칼슘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에 '집밥'으로 원기회복 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국내산 향표고버섯(200g내외/팩)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00원



한우 /이마트

할인한 3980원에 판매한다. 향표고버섯은 송이버섯처럼 갖의 육질이 단단하고 대가 굵고 쫄깃하며 송이 특유의 향을 지닌 고급 품종의 표고과 버섯으로, 식감이 탁월해 다양한 조리법으로 요리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